



# ‘코로나19’ 1년... 제주 위기가정 늘었다

### 팬데믹 상황 길어지며 실직과 자영업자 휴폐업 급증 기초수급자 1년 전보다 19%·조건부수급자는 52% ↑

코로나19 상황이 1년간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증가와 맞물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조건부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나며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93가

구·2만542명으로 2019년 12월(1만2155가구·1만7198명)에 비해 가구수는 16.8%, 가구원 수는 19.4% 증가했다. 2018년 12월 1만1484가구·1만6386명에서 2019년 12월까지 가구수와 가구원수가 각각 5.8%, 5.0% 증가했던 것에 견주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 감소로 수급자 가구와 가구원 수 증가율이 이전보다 3~4배 안팎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가 어렵지만 근로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만 18~65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해 일정소득을 얻는 이에게 지급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 이행 때까지 급여가 중지된다.

조건부 수급자는 2018년 12월 1589명에서 2019년 12월에는 1958명으로 23.2%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2981명으로 3000명에 육

박하면서 1년 전보다 52.2% 늘어 이전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 중에서 경영난이 심각해져 휴폐업한 이들이 늘면서 조건부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연중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도내 2개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침몰 32명민호 수색 종료 해경, 경비병행으로 전환

제주해상에서 전복 후 침몰한 어선 32명민호(39t)의 실종자 등을 찾는 집중 수색이 사고 발생 열흘만에 종료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열흘째 해오던 32명민호 집중수색을 경비병행 수색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열흘간 합선 167척과 항공기 43대, 조영탄 631발을 투입해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나머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226시간이 경과한 상태인데다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까지 겹쳤다”며 “집중수색을 위한 함정, 잠수요원 등의 구조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비 병행 수색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한림 선적 어선 32명민호는 지난달 29일 선장과 선원 등 7명을 태우고 오후 4시쯤 서귀포 성산항에서 출항해 제주시 한림항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47분쯤 제주항 서방과제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이후 해경은 지난 4일 바지선 등을 투입해 침몰한 명민호 선미 부분을 인양, 국과수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 중이다. 이상민기자



모락모락 피어오는 오일장의 겨울 정취. 최강 한파가 찾아온 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내 어묵과 옥수수 짬뽕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정겨운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 여전

### 6~7일 13명 추가 확진 현재 누적 확진자 474명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한자릿 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하룻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462~470번)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새해 들어 1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1일 13명, 2일 4명, 3일 10명, 3일 8명, 5일 5명이다.

7일 0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4명(471~474번)이 추가 발생하면서

이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4명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제주 463·464·465·467·469·470번) ▷한라사우나 관련 1명(462번)으로 파악됐다. 추가 확진자 중 3명은 고든비노의학과의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등 나머지 2명(466·468번)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6일밤 확진 판정을 받은 재학생 A군은 이날 오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확진에 따라 7일까지 예정됐던 기말고사는 중단됐다.

7일 추가 확진자 4명 중 2명은 확진자의 접촉자(471·472번)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7일 10명의 도내 확진자가 퇴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에서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108명, 격리 해제자는 366명(이관 1명 포함)이다.

한편 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 1곳(제주시 연동 오복류치과의원)의 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지난 4~5일 해당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 사라진 145억 어디에 있을까...

### 경찰 카지노 현금 증발사건 자금관리 직원 추측 범행 수법과 공범여부·현금 처리내용 추측 무성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현금 145억원 증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현금과 함께 사라진 외국인 직원을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랜딩 카지노 현금 증발 사건을 서귀포 경찰서에서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쟁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신화월드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팜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는 지난 4일 오후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145억 6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람정 측은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50대 외국인 직원 A씨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이날 A씨를 횡령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휴가를 떠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현재 A씨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사건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람정 인터내셔널이 지난 5일 홈페이지 내부 정보에 “4일 145억 6000만원의 자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자금 담당 직원을 찾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공식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합구하고 있지만, 자취를 감춘 A씨와 더불어 사라진 돈의 행방을 놓고 여러가지 추측이 돌고 있다.

카지노에서 사라진 현금이 워낙 거액인데다 무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라진 돈이 모두 5만원짜리라고 가정하면 갯수로는 29만여장에 이르고 무게만 해도 290kg이 넘는다.

이 때문에 공범과 함께 수일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공범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처리 방법도 의문이다. 145억원을 한꺼번에 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택배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해외 금융계좌로 송금하려 해도 워낙 고액이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지노에서 사라진 돈이 국내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기자

## 양수진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총경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양수진(51·사진·경찰대 9기) 강력계장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7일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양 계장은 서귀포시 남원을 출신으로 서귀포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경위로 임



용됐다. 이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제주서부서 형사과장,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등을 지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18일부터 읍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8일을 기해 완화되면서 모임과 회식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읍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부터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읍주운전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적 모임과 회식, 행사 등이 갑자기 늘어나 신년 분위기에 편승한 읍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 1,2,3년생  
감귤 ..... 1,3,4년생  
탕자대목 ..... 1년생  
성하홍조생 ..... 1년생  
성전온주 ..... 1년생  
천해향 ..... 4,5년생  
황금향 .....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